

PREVIEW

네이버문화재단 ‘헬로!아티스트_아트 어라운드’
NAVER Cultural Foundation ‘Hello!ARTIST_Art Around’
〈튀어나온 돌과 펜스〉

참여작가 | 강현선, 호상근
전시기간 | 2016. 11. 11 금 - 11. 30 수
오프닝 리셉션 | 2016. 11. 11 금 6PM
아티스트 토크 | 2016. 11. 19 토 4PM (패널 : 이성휘, 최정윤)
후원 | 네이버문화재단



강현선, 〈마지막 아파트〉, 싱글 채널 비디오, 5분 30초 사운드, 2016



호상근, 〈식후시간을 즐기는 울지로 아저씨들〉, 종이 위에 연필 색연필, 25.7×36.4cm, 2016

전시소개

‘헬로!아티스트-아트 어라운드(Art Around)’는 젊은 시각 예술작가와 국내 주요 대안적 전시 공간을 선정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작가와 공간의 공생’, ‘공간과 지역의 공존’에 관한 새로운 경향을 실험하는 소규모 릴레이 전시이다.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에서는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네이버문화재단 후원으로 총 4개의 공간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개최되고 있는 ‘헬로!아티스트’의 오프라인 전시 ‘아트 어라운드’를 개최한다. 그 세 번째 시리즈로 열리는 호상근 작가와 강현선 작가의 2인전 〈튀어나온 돌과 펜스〉는 호상근 작가의 작품 중 하나로부터 그 제목을 빌어왔다. 이는 도시라는 인공적인 형식 속에 산재한 억지스럽거나 어긋난 구조들을 드러내는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의 타인 간의 관계성, 교차되는 시선, 독립적인 듯 어우러지는 우리의 모습 등 다양한 도시 속 인간군상을 제시하고 있다.

호상근 작가가 일상에서 수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도시민의 소소한 삶의 면면을 색연필을 이용한 담백한 드로잉으로 그려낸다면, 강현선 작가는 도시 공간, 특히 주거 공간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기억과 감정을 스펙터클한 영상과 설치작업으로 담아낸다. 이들은 도시 공간에서 벌어지는 개인과 사회의 이야기를 관찰자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의 압축된 장면, 혹은 연속된 시간의 흐름 속에 재현하게 된다. 하나의 공간 속에 어우러진 두 작가의 작품을 통해 교차되는 시선을 경험하면서 관객인 자신의 모습과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2016 작가 미술장터
블라인드 데이트 Blind Date

기획 | 남서울예술인마을
진행 | 남서울예술인마을,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참여 작가 | 정현수, 고재욱, 구민정, 김다움, 김수영, 김시연, 김은진, 김재범, 김정모, 김지민, 나나와 펠릭스, 남진우, 노은주, 문승희, 박선민, 박지훈, 백정기, 변상환, 서버리, 성유진, 손동현, 심아빈, 안길원, 유영진, 윤가림, 윤재민, 율리안, 이미혜, 이윤호, 이노강, 이정형, 이종철, 장성은, 장종완, 장 한, 정연두, 조혁수, 최승훈, 최연근, 추미림, 한성우, 한정림, 한황수, 호상근 (총 44명/팀)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연계행사 1. 작가 토크—스튜디오 교신
- 일시 : 2016년 9월 24일(토) 오후 4시
- 강연자 : 정연두, 고재욱
- 장소 :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연계행사 2. 컬렉터's 라운드 테이블
- 일시 : 2016년 11월 4일(금) 오후 6시
- 컬렉터 : 김다움, 이미혜, 박은주
- 장소 :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연계행사 3. 오픈 스튜디오
- 일시 : 2016년 11월 26일(토)~27일(일) 오후 2~8시
- 장소 : 남서울예술인마을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20)

본 행사. 블라인드 데이트
- 기간 : 12월 3일(토)~7일(수) 오전 11시~오후 8시
- 오프닝 리셉션 : 12월 3일(토) 오후 5시
- 장소 :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행사소개

‘블라인드 데이트(blind date)’는 서로 모르는 남과 여의 데이트 또는 소개팅을 뜻한다. 본 행사에서 이 비밀스러운 만남을 갖게 되는 두 주체는 예술품과 사람(관객)이다. 일반적으로 작품을 설명하는 압축적인 정보를 일컬어 ‘캡션’이라고 하는데, <블라인드 데이트>에 출품되는 모든 작품들 캡션에는 작가 이름이 없다. 본 행사는 미술가의 유명세나 작품의 투자 가치에 경도되지 않고, 관객 스스로 주체적인 작품 감상을 하고 더 나아가 작품을 선택하고 소장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현대미술 작가들의 활동과 작품 컬렉팅을 단순한 경제적 논리에 적용하고 투자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연계 행사인 <작가토크—스튜디오 교신>과 <컬렉터's 라운드 테이블> 그리고 <오픈 스튜디오>를 별도로 마련하여 작품을 알아가고 관람하고 소유하는 전 과정을 즐겁고 색다른 하나의 활동으로 안내한다.

| REVIEW with PHOTOS |

김연용 개인전 <유령의 마음>

Yeon-Yong Kim solo exhibition <The Phantom Heart>

2016. 10. 07 금 - 2016. 10. 30 일



그것은 마치 본인이 죽은지 모르는 상황에 처한 사람과 같았다. 없어진 줄 모르는 신체를 더듬거리며 스스로가 누구인지 되찾아가는 누군가처럼 맥락이 없어진 사건만을 떠올릴 뿐이었다. 본인이 어디쯤에 있는지 모르고 긴, 긴 시간을 부유해야만 하는 이름없고 소리없는 비물질의 행성.

(글. 이경아 코디네이터 · 조근준 인턴)

1 | 작품 <work no.5 (전혜림×안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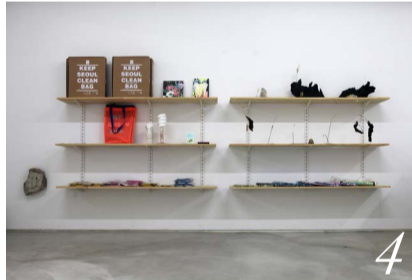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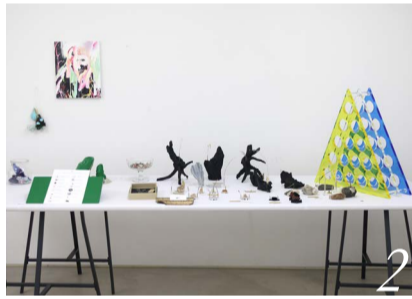
2 | 오프닝 리셉션, 10월 7일

3 | 퍼포먼스 '마리는 안느' (김규림, 백승지, 김연용), 10월 30일



선물이 예술이네요 <GIFT : WILLING N DEALING>

2016. 9. 23 금 - 2016. 9. 30 금



작가들의 소규모 작업과 오브제로 채워진 '선물가게-선물이 예술이네요' 행사를 가졌습니다.

행사는 끝났지만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홈페이지 (willingndealing.com) 에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으며, 직접 만날 수 있도록 공간에 작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혹은 자신에게 작품을 선물할 수 있는 '선물이 예술이네요'는 계속 이어진답니다.

1-5 | '선물이 예술이네요' 디스플레이 장면

6 | 신광 작가의 도장과는 모습

| EVENT |



2016 블라인드 데이트의 1차 연계행사인 고재욱, 정연두의 <작가토크 스튜디오 교신>이 9월 24일에 열렸습니다.



또한 2차 연계행사인 <컬렉터's 라운드 테이블 (김다운, 이미혜, 박은주)>이 11월 4일에 열렸습니다.

2016 블라인드 데이트의 3차 연계행사인 오픈 스튜디오는 11월 26일 (토), 27일 (일) 이틀간 남서울예술인마을 스튜디오에서 2시~8시까지 열립니다.



남서울예술인마을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20

| SHORT-CUT NEWS | 윌링앤딜링 전시 참여 작가들의 행방



한정림 작가는 10월 29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일본 오사카 CAS에서 개인전 <a room of her own>을 가졌습니다.

김다음, 심아빈 작가는 블루메 미술관에서 열리는 그룹전 <한 뽀의 온도-관계측정의 미학>에 참여합니다. 전시는 2016년 10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박진우 작가는 '100% Design London, Olympia' 에서 현재 가장 진보된 조명인 OLED 패널을 사용한 LG 디스플레이의 커미션으로 RCA 전 학장이던 Ron Arad와 함께 연출한 벽면 조명과 박진우 작가의 개인 작업인 원형 미러 조명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기간은 9월 21일 부터 25일 까지.



이정형 작가는 송은 아트큐브에서 개인전 <오늘의 현장>을 가집니다. 전시는 11월 4일부터 12월 3일 까지.

변상환 작가는 북서울미술관에서 열리는 <서울 포커스 2016>에 참여합니다. 전시는 2016년 12월 20일부터 2017년 3월 19일 까지.

한성우 작가는 아마도 예술공간에서 12월 12일부터 열리는 네이비문화재단 헬로! 아티스트 아트 어라운드 전시를 가집니다.



장성은 작가는 제3회 '아마도 사진상'에 선정되어 아마도 예술공간에서 개인전 <Writing Play>를 가집니다. 전시는 11월 5일부터 11월 30일 까지.

박선민 작가가 사진 작가로 참여하고 있는 버수스 9호 Versus vol.9가 11월 25-27일 언리미티드에디션에 맞춰 갤러리 팩토리에서 발간됩니다. 이번 사진들의 주제는 모서리, 물, 선 vs 등성이, 섬, 점이며, 텍스트는 정지된 작가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라는 후장사실주의 소설로 이루어집니다.

| W&D NEW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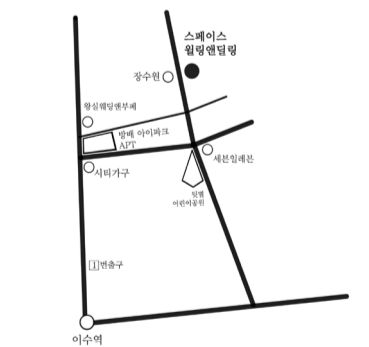
김인선 디렉터는 요즘 들어 급증한 기억력 감퇴의 원인을 단기간 다이어트에 의한 뇌 수축 현상으로 보고 있다.

이경아 코디네이터는 새로 출시된 아이폰7을 구입하여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으나, 맥북이 침수되어 폐기하게 되자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잠겨있다. 하지만 사과 사랑은 여전하다.

한황수 코디네이터는 '여기 네 이야기'라는 감성 장르 웹툰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아무도 찾지 않지만 혼자 만족스러워 하며 연재중이다.

조근준 인턴은 '이럴려고 학생했나' 과제감 들어하며 방학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 오는 12월 세운상가에서 있을 전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시는길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77-20번지 2층



발행: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편집인: 이경아, 조근준, 한황수 감수: 김인선 발행일: 2016년 11월 10일